

# ‘ 멋장이 항장님 ’

전남지부                    오    정    룡  
산업위생과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 어느날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조차 흐리고 게다가 마음이 조금 무거운 것은 아무래도 탄광촌을 오르내릴려면 우선 마음의 긴장부터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일 것이다.

광주에서 1시간정도 동남쪽으로 차를 타고 달리면 갈수있는 호남지방의 유일한 탄전지대가 있는 화순으로 작업환경측정을 나가게 되었다.

오전에 다른 탄광을 들렀다가 무등탄광에 도착했을때는 오후 3시가 다 되어서였다. 오전까지만해도 비는 내리지 않고 흐렸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빗방울이 후두둑 하나 둘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되어 조용했던 산골짜기의 산야가 어두워지며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잠시 소장님이 기거하시는 조그마한 방으로 비를 피하였다가 소나기가 그치자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항장님을 따라 나섰다. 소나기가 지나간 산골짜기는 다시 적막한 침묵으로 변했고 비젖은 돌멩이들과 새파란 잎새들이 축축히 젖어 있었다. 항장님을 따라 항 입구가

지 한참을 올라 항내로 안내되었다. 항장님의 연세는 예순이 다될 것 같은데 한창때인 우리(측정반 2명)보다 지치지 않고 앞서 가시는 것은 아무래도 매일 이 길을 오르내리시며 단련된 체력이라 생각했다. “항장님! 이런 탄광 생활은 몇년이나 되셨습니까?” “한 40여년 되어갑니다” 하시며 깊은 숨을 몰아쉬고 아직도 몇십년은 거뜰히 하실 수 있는 모습이였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쉬면서 지나오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여쭙자 “별로 기억나는 이야기는 없지만 같이 막장에서 일하다가 동료가 탄더미에 묻혀서 죽게 됐거나 진폐증에 걸려서 같이 일하지 못하고 헤어질때가 가장 섭섭하고 괴로웠다”고 하셨다. 18세에 석탄공사에 입사해서 20여년을 무사히 일해오다가 동료중에 한사람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의 개인탄광으로 옮겨와서 일하신지도 20여년이 되었단다. 개미집처럼 뻗어들어간 항내를 안내해 주시는 뒷모습은 백전노장이 진지를 살살이 알고 계신듯하다. 어느 지점이 낙석으로 위험하고 어느 지점이 배수로를 쳐야 할 곳이고 마치 항로를 손바닥 안에 놓고 읽으시는것 같았다.

측정을 마치고 내려와서 더운물로 씻고 난 다음 소장님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봉고차에 오르려하자 화순읍까지 동승 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 분이 계셨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금 전까지 까만 광부의 작업복 차림은 어디로 가고 신사복에 빵떡모자를 눌러 쓴 멋장이 항장님으로 변해 계시지 않은가!

봉고차를 타고 한시간 가까이를 달려오며 수많은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아침에 출근은 새벽 다섯시 반에 기상하여 조반을 들고 한 반시간쯤 화순읍까지 걸어나와서 다시 청풍면까지 비포장도로를 1시간쯤 시외버스를 타고가면 탄광에 8시까지 도착하신단다. 매일 되풀이되는 출근 길이지만 여태 몸이 아파 결근해보신 일

이 없으시다며 “ 요즘같은 여름은 일찍 일어나 출근해도 좋지만 겨울에는 좀 힘들다 ”고 하셨습니다.

“ 항장님은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 하시렵니까 ” 하는 질문에 “ 4남1녀를 둔 자녀들이 이제 모두 장성하여 잘살고 있어서 탄광일은 그만 하라고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고 생활의 낙(樂)이 없을 것 같기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계속하고 싶다 ”고 하신다. 그동안 같이 일해 온 동료들은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논밭도 사고 그런대로 편히 살고 있지만 항장님은 자녀들 교육시키시느라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자식들 자랑을 은근히 하신다. 장남, 차남은 대학나와 결혼하여 자기들 생활을 따로하고 있고 세째도 ROTC 장교로 복무중이며 막내는 광주 J의대에 재학중이란다 여식이 하나 있는데 결혼 정년기가 다되어 걱정이 되신다며 은근히 딸자랑을 하시고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집에서 신부수업을 하고 있으니 좋은데 있으면 중매까지 잊지 않으시고 부탁하십니다. 주위에서는 고생하여 번 돈으로 그렇게 잘 가르쳐 봤자 다 쓸데 없고 건강이 중요하니

우선 먹는데 아끼지 말라는 말을 들을때도 많았지만 모든 식구들이 모두 건강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하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공부시키는 것이 장래를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 공부시켰는데 다들 공부도 잘해줘서 피곤한줄 모르고 일해 오셨단다. 조그마한 체구에 단아한 얼굴에서 풍기는 인자하신 모습과 인생의 거의 전부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희생정신, 어찌면 안팎의 모습을 그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항장님은 지나간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절대 후회는 해본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탄광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사셔서 일할 수 있을때까지 일하고 싶으시다는 근면의 의지와 자녀들을 위한 아낌없는 희생의 헌신과 장래를 지혜롭게 염려해주시는 자녀사랑 그리고 한길만을 고집하며 힘차게 달려오셔서 인생을 승리하신 멋장이 항장님의 앞날에 끝없는 전진과 소원하시는 결실 맺으시길 바라며 아낌없는 박수를 드립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때 무거웠던 마음은 어느덧 저하늘 멀리 사라지고 나의 빈 주먹은 불끈 쥐어 있었다.

## 협회소식

### 협회 직원 인사

○ 황우익 (서울지부, 센타소장 임명) ○ 박성남 (전남지부, 센타소장 임명) ○ 김영갑 (본부, 사업국장 임명) ○ 김태호 (본부, 교육훈련과장 임명) ○ 김병곤 (전북지부, 사무국장 직무대리 임명) ○ 김창일 (서울지부, 관리과장 임명) ○ 임승철 (대구경북지부, 관리과장 임명) ○ 정채권 (대구경북지부, 건강 관리과장 임명) ○ 임시우 (충남지부, 관리과장 임

명) ○ 맹성호 (충남지부, 산업위생과장 임명) ○ 박상용 (충남지부,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임명)

### 조규상 회장

### WPACMR 會議 참석하고 귀국

본 협회 조규상 회장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WPACMR (서태평양 지구 의학연구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후 일본 노동성과 산업안전위생협회를 방문하여 본 협